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치장은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당신은 이미 꾸미지 않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수수함으로
때로는 이슬 잔뜩 머금은 순수함으로
당신은 바로 여기 계십니다

온 생애를 그렇게 사셨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함께 하는 이들에게는 포근함으로
그윽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며
삶의 어둔 그늘을 살며시 씻어 내 주셨습니다

화관이 아무리 예쁘다 하여도
당신의 사랑 넘치는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초들이 아무리 세상을 밝게 비춘다 하여도
당신의 눈부신 찬란함을 덮기에는 모자랍니다

그리하여, 어머니!
당신은 형형색색 번져 가는 무지개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겹겹이 속내를 보여주는
단아한 아름다움을 지닌 장미보다
더 너른 마음으로 주름 진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차가운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매화보다
더 올곧은 마음으로 오로지 아드님을 바라보십니다

당신은,
그리하여 천상 어머니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화로운 호칭보다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자신을 비취볼 수 있는
참되고 뚜렷한 거울이 되어 주시는 참 어머니이십니다

향기로움이 번져갑니다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이 향기는
온 세상을 아찔하게 만듭니다

향기에 취한 별들이 꽃 주위로 모여 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당신께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당신 안에서
넉넉하고 그윽한 위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월, 다섯 송이의 장미꽃 기도를 드립니다
다섯 색깔의 세상을 품어 주시기를,
다섯 색깔의 마음을 안아 주시기를,

어머니!
이것이 우리의 봉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당신과 더불어 따스한 밤은
점점 축복의 빛으로 물들어 갑니다
당신과 더불어 이 밤은 온통 축복으로 넘쳐 납니다